2017 vol.209 | 12 December

VOICEYE
KOR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5년 전 사라졌던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 다시 살아나다

테마기획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아시나요?

인 터 뷰
서울여자대학교 인권프로젝트팀 '훈맹정음'

포 커 스
지하철 객실 통로 중앙의 수직 손잡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 위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지진

04 | 시선집중
- 5년 전 사라졌던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 다시 살아나다
  양남규(성음회 전화사서함 담당자)

06 | 테마기획
-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아시나요?

08 | 인터뷰
-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서울여자대학교 인권프로젝트팀 '훈맹정음'

10 | 포커스
- 지하철 객실 통로 중앙의 수직 손잡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 위험합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1박 2일의 행복, 내 마음의 온도는 38.5도
  김영진(자원봉사자_충청남도 계룡시)

13 | 월드 리포트
-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 안경!
- 영국, 기차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 앉을 자리는 없었다!

14 | 뉴스앨범
- LG유플러스와 함께 김장으로 사랑을 나눠요!
- 금비그룹,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한자 교재 제작!
- 정보접근성 개선과 기술 전파를 위한 컨퍼런스 열려
- 서울교통공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쌀, 라면 기증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7년 시각장애어르신 효사랑 큰잔치 실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대해주세요!

VOICEYE
voiceye.com

지난 11월, 포항 일대에서 규모 5.5의 큰 지진이 일어난 후,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진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지 진

입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문장부호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영어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5년 전 사라졌던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 다시 살아나다

양남규(성음회 전화사서함 담당자)



"지하철 승강장에 가면 상 · 하행선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모았던 TV 주말 프로그램 스펀지에서 나왔던 퀴즈 문제였다. 과연 뭘까? 잔뜩 궁금증을 안고 기다렸는데 그 답은 바로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이 었다. 많은 출연자 패널들도 몰랐고 방청객들도 몰랐던 사실을 이 날 각인시킨 프로그램 스펀지 퀴즈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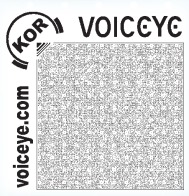
이처럼 비장애인들은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는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이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이게는 큰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원활히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는 접근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뛰는 현장에서 항상 절감하는 일이다.

다행히 그 일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면 그간의 수고로움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드디어 생겼다. 서울지하철 7호선 승강장 도착 알림 신호음이 5년여 만에 부활한 것이다. 지하철 7호선 승강장 알림 도착 신호음이 사라진 것은 5년 전, 옛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을 없애버린 것이다.

지난 5월 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나뉘어져 있었던 두 기관이 새로운 브랜드인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기회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와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성음회(전화사서함 담당자들의 모임)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바로 5년 전 사라져버린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그 선두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가 나섰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하나의 제안을 담은 민원을 공문형태로 서울교통공사에 접수하였다. 승강장에 지하철이 도착하는 알림 신호음을 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의 공문이 묻혀버린 걸 확인하게 됐고,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가 뒤를 이어 전면에 나섰다. 6월 중순, 서울지부가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교통 담당관과의 접촉을 거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되어 최종 담판을 짓게 되었다. 이런 단계를 거쳐 마침내 담당 주무관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결재를 올렸고 이것이 7월 중순 통과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인 녹음작업을 거쳐 각 역의 시스템에 이를 접목하고 작동하기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을 8월 중순경 양측은 조율을 마쳤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토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이 복잡해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와 서울지부, 성음회는 해당 부서를 상대로 계속 접촉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해 나간 끝에 마침내 우리의 요구대로 9월 중 서울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에서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시행할 거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받기에 이르게 됐다. 성음회에서 전반적인 기획을 맡고 양 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은 공동 프로젝트로 나선 4개월 만에 얻은 성과는 드디어 각역의 시스템에 이를 가동할 수 있는 작업을 모두 마쳐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걸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청취자들의 제보로 속속 확인된 바이며, 본 담당자도 어제는 주로 다니는 지하철역 역무원의 확인으로, 오늘은 출퇴근길에 귀에 들리는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신호음을 듣고 계단을 뛰어 내려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도착 알림 신호음을 없앴다.",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승강장에서 울리는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에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착 알림 신호음을 없앴다." 이것이 옛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와 서울지부, 전화사서함 담당자들의 모임인 성음회의 공동 프로젝트로 5년여 만에 우리 시각장애인의 안전 이용 확보를 위해 이를 다시 살린 것이다. 요즘은 전광판과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애플리케이션 으로 지하철 도착 접근 유무를 확인하는데, 승강장의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승강장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에 대해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이, 유독 서울도시 철도공사 운영 구간 한 곳에만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한 성과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기쁨이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요소 제거는 어떤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해 가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요. 담당자가 느끼는 체감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을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설득을 통해 꼬인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세 곳이 함께 힘을 모아 행한 공동 프로젝트야말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당면한 우리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만하다.

우리는 30년 전 출근길에 나섰던 젊은 청년 하나를 잃어야만 했다. 시각장애인계의 인재로 꼽히던 이춘광 선배를 말이다. 열악한 지하철 이용 환경이 이 세상에서 그가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 되게 한 것이다. 이제 다시 통일된 모습으로 살아나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승강장에 울려 퍼지는 지하철 도착 알림 신호음을 들으며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상 · 하행선을 구분하는 가운데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아시나요?

장애의 유뮤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보편적 설계라는 의미로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의 셀윈 골드스미스에 의해 처음 그 개념이 정립되었고,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7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공평한 사용(ezuitable use)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사용방법과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인데요.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으로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정보 이용의 용이(perceptive information)인데요. 이 원칙은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내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 언어, 촉감 등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술들에 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인데요.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가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의 실패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사용자들이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인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조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의 사용자와 도우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용품 등이나 서비스,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서울여자대학교 인권프로젝트팀 '훈맹정음'

캔음료 위에 적힌 점자 '음료'
맛이 모두 다르지만 동일하게 표현된 점자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훈맹정음'이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맹정음' 팀의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 인성 교육수업에서 만나 결성하게 된 '훈맹정음' 팀 입니다. 저희 팀은 13학번 식품공학전공 황지수, 14학번 경영학전공 주예빈, 15학번 경영학 전공 김도현, 15학번 저널리즘 전공 이수현, 15학번 경제학전공 유경민, 이렇게 모두 5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롬 인성교육 수업이란 무엇인가요? 또 어떻게 점자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셨나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제를 다룰까 생각하던 중 몇 달 전 논란이 되었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주제를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거리를 거닐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번쩍거리는 간판들이었는데, 무심결에 우리가 이 간판 들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캔음료 위의 점자가 모두 '음료'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실제 음료를 가리 점자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자판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주제를 점자로 정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점자를 접해본 적도 없었고, 실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본 적이 없어 막막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점자일람표를 통해 점자의 모양을 익히기 시작

했고 처음에는 문구점 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코팅지에 샤프를 이용해 점자 를 따라 찍어보기도 했습 니다. 그러던 중 코레일의 자판기 내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마시던 음료 캔 위의 점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점자는 '음료'라고 표기된 것이었고, 캔음료 도 커피, 콜라, 사이다, 이온음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음료'라는 포괄적인 말로 기입해 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 을 조금씩 확대하다 보니 자판기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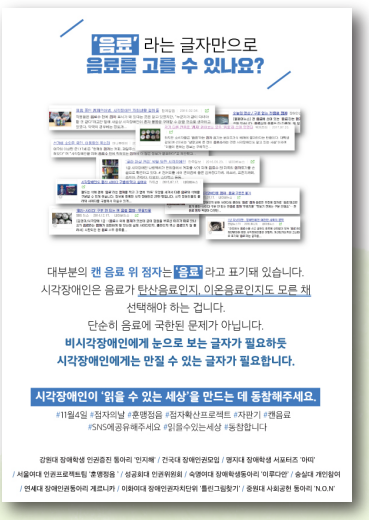
점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찾아보던 중 11월 4일이 점자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1월 4일에 점자가 부착된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SNS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니 저희 학교에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서와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인근 대학교의 인권동아리 등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판기의 음료를 다 가리고 실제 시각장애인이 음료를 고르듯이 비장애인 학우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고, 타 대학 동아리 및 개인 참여자들은 11월 4일을 기준으로 자판기 설치에 힘을 보태주었 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 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분을 만나 조언을 듣고 진행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자판기 업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판기 업체 측은 음료의 이미지를 가리는 것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간을 여유롭게 줄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저희는 조금 더 많은 학우들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긴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판기 업체 측에서 음료 칸에 모두 같은 이미지를 부착하는 것은 수익상 어렵지만 프로젝트 가 끝난 후에도 자판기에 음료 이름 점자 표기는 부착해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점자는 계속 부착 해두고 있습니다.

추후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또 훈맹정음이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긴 했으나 사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만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같은 곳과 접촉해 프로 젝트의 긍정적인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 등 조언을 구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욱 많은 대학 과 공공시설 내 자판기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 저희 팀이 현재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실을 종종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최종 목표가 사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인 만큼 이번 자판기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그것이 사회의 파급효과 를 불러 정부의 정책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객실 통로 중앙의 수직 손잡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 위험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심심찮게 객실 통로의 중앙에 설치된 수직 손잡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손잡이가 시각장애인의 객실 내 보행 안전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각장애로 인해 눈앞의 장애물을 판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객실 내에서 보행을 하다보면 통로 중앙에 설치된 수직 손잡이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 수직 손잡이는 쇠로 만들어져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힐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 광역전철 등 객실통로 중앙에 수직 손잡이가 설치된 지하철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 7호선 신형전동차 및 공항철도, 대구도시철도공사의 3호선 지하철 객실의 통로의 중앙에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보행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의 철거는 어렵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개선을 기울인 희망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신분당선의 개통 당시 강남역부터 정자역까지 운행되는 지하철의 객실 통로에 중앙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불편 민원으로 2015년 2월~11월 사이에 철거되었으며, 이후 정자역과 광교역을 오가는 지하철 추가 개통 시에는 처음부터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객실 내 보행 안전을 위해 충격완화재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중앙 수직 손잡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박 2일의 행복, 내 마음의 온도는 38.5도



김영진(자원봉사자_충청남도 계룡시)

사람의 기본 체온은 36.5도. 그 이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누구나 앓아눕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난 2013년 공주, 부여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온 뒤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온도는 38.5도이다. 하지만 고열로 인한 통증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만난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온전히 몸을 맡긴 채 안내를 부탁했던 고마운 친구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번 역사문화탐방에 대해 느낀 바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지각색으로 물들어 가는 단풍잎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던 어느 날, 한빛맹학교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어느 여름, 안동으로의 문화탐방에 이어 공주 · 부여 역사문화 탐방에 본인이 또 한 번 참가하게 되었고, 이번만큼은 꼭 함께 멘토로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취업준비라는 이유로 안동 역사탐방은 다녀오지 못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터라 이번만큼은 좋은 경험을 쌓아보고자 선뜻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출발 당일,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려니 피로감이 온 몸을 감싸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말을 반납하고 좋은 일을 하러 가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스스로 되새김질을 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된 시각장애학생들과의 첫 대면 후 버스에 올라탄 뒤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의 1박 2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 함께 동행하게 될 동진이는 특히나 말 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처럼 보였다. 애써 말을 걸며 공통분모를 찾아내고자 이동 내내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동진이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듯 보였다. 물론, 한참 예민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또래 아이들처럼 친분을 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당연한 듯 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목적지인 공주 피자스쿨에 도착했다. 준비된 피자반죽 위에 토마토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토핑을 올리며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동진이를 비롯하여 아이들 얼굴에 비춰진 미소였다. 직접 피자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제작한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큰 흥미로 다가간 듯했다.
뒤 이어진 뺑튀기 기계 체험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다. 이를 비롯하여 이번 문화역사 탐방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에서 엿볼 수 있는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임원 분들의 배려심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워주시려는 노력이 묻어났다.
나 또한 우리 조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욕심에 빽빽한 일정과 시간에 쫓기면서도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설명과 다양한 체험을 선물하고 싶었다. 어쩌면 나의 욕심이 과했었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런 투정 없이 잘 따라와 준 우리 조원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동진이와의 관계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행사가 마무리 될 무렵 많이 가까워졌다. 내 말에도 귀 기울여 주었으며, 나중에는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기도 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며칠 뒤에 쓰는 글이지만 1박 2일 내내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 까닭인지 벌써부터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행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떠나 내 자신조차도 많이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즐긴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다.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기 전 단지 나는 멘토로써 도움을 주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행사 후 나는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았다. 한동안 잊고 지낸 동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었으며,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나눔의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는 나비효과처럼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함께한 아이들이 장차 미래에 차별과 선입견 없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줬던 우리 '불4조' 동진, 유진, 경윤, 지원아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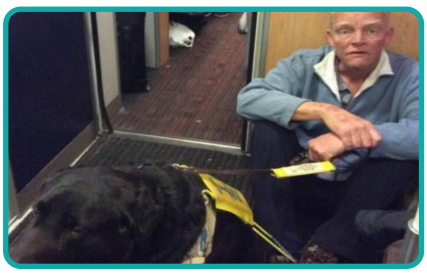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 안경!

미국의 고등학생 시각장애인 세 명이 스마트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해 조지 메이슨 대학의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생하게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안경은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회사 Aira에서 제작한 안경인데요. 이 안경은 타인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원격 프로그램에 비디오를 제공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보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Aira는 미국 전역에서 이 특별한 안경으로 보이는 풍경을 설명하기 위해 활동하는 직원을 100명 정도 두고 있는데요. Aira는 이 스마트 안경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고,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국, 기차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 앉을 자리는 없었다!

지난 11월 17일 영국의 시각장애인인 로저 더브먼(Roger Debman, 56)은 영국 노스요크셔주 요크시에서 케임브리지셔주 피터버러시까지 가는 기차에 안내견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로저는 안내견을 앉히기 위해 일반석보다 공간이 넓은 노약자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모든 노약자석에는 이미 비장애인 탑승객들이 앉아있었고, 로저는 관리자에게 장애인석에 앉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관리자는 대답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안내견과 함께 통로에 앉아서 갔는데요. 이 상황은 로저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로저는 “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지만 노약자석에 앉은 누구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며 “이건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좌절을 표했는데요. 이어 "노약자석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라며 "교통 약자를 배려한 일반들의 성숙한 의식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차의 관계자는 “로저가 기차에서 당한 일은 진심으로 유감이다”라며 “앞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직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LG유플러스와 함께 김장으로 사랑을 나눠요!



지난 11월 21일과 28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LG유플러스'의 후원으로 2017 사랑의 김장 나눔을 실시했는데요.
LG유플러스 직원과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한 결과 2,140kg의 김장 김치가 탄생 되었습니다.
이번 김장 김치는 시각장애로 인해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214가정에 10kg씩 전달되었는데요. 김치를 전달 받은 모두 가 맛있는 김장김치와 함께 훈훈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접근성 개선과 기술 전파를 위한 컨퍼런스 열려



지난 11월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단법인 UALab, 사단법인 유니버설디자인학회, 접근성연구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주최로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정보접근성 전문가 및 개발자 등 약 6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방안과 새로운 미래의 준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웹 접근성, 모바일접근성, IOT 접근성, UD/UX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이어갔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의 참가자들과 토론 발표자들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의 장애인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원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금비그룹,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한자 교재 제작!

금비그룹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교재 '스스로 익히는 생활한자'를 제작 · 후원했습니다. 본 촉각 교재는 숫자, 크기, 요일, 가족, 방향 의 기초 한자 모양 과 획순을 손으로 만져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먼저 전체 한자의 모양을 손으로 만져 확인하고 그 옆 에 점자로 출력 된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힐 수 있는데요. 총 1,500개의 제작된 촉각 한자 교재는 맹학교 등 시각 장애인 유관기관에 우선 보급 된 후 내년 1월 중 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개인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쌀, 라면 기증

지난 11월 29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특별시립 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20kg 쌀 32포대, 40개 입 라면 25 박스를 기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쌀과 라면 후원은 추운 겨울 끼니를 해결하는데에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 독거, 고령의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 전달될 예정인데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7년 시각장애어르신 효사랑 큰잔치 실시

지난 12월 6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2017년 시각장애어르신 효사랑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 어르신 90분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 및 노래 자랑과 함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노원역에 위치한 '바다장어구이, 물회'에서 시각 장애어르신들을 위한 장어탕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VOICEYE
voiceye.com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대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의식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말을 낮추거나 지나치게 친절을 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감정과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함께 가다가 멋진 풍경이 나올 때나 일상적으로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등 아무것이나 좋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의식은 되도록 갖지 않고 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12월 209호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